

교수학습개발센터  
신임 소장 인터뷰

# 특집

먼저 취임소감을 여쭙겠습니다. 센터에 취임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생각과 취임 후에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양호환 소장(이하 소장):** 제 자신도 CTL 혹은 이전의 IMC가 대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거 같아요. ‘아,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했구나’, ‘여러 가지 활동에 관한 홍보를 하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특히 옛날에 IMC 시절에는 지원시설 특히 하드웨어적인 지원시설로 있었고 활용도도 높지 않았는데 아마 강명구 소장님 취임하시고부터 이게 CTL로 바뀌고 글쓰기교실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되고 하면서 CTL이 규모와 활동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직접 참여한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교무처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소관부서로서 CTL과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CTL이 점점 대학교육에 중심으로 역할 재정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전에 IMC, 혹은 매체개발 이런 쪽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일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와 같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설을 잘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발해 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교무처가 특히 강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직접적이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임 후 첫 소감은 조직이 우선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성원이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고, 서울대학 내에서 드물게 보는 연



양 호 환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구 인력, 그리고 시스템 운영 인력, 이런 다양한 인력들이 있어서 잠재력이 굉장히 큰 기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무처같은 데는 관공서 같은 느낌이 강한테 여기는 연구소와 같은 느낌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장점인 거 같아요. 관공서 같은 엄격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CTL의 문제점이라고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소장** :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활동이 다양하다 보니까, CTL이 통합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가 하는 게 희석된 면도 있죠.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다 보니까 실제로 방만해진 것도 있고요. 외부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뭐냐’, ‘가장 특징적으로 잘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물을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특성화 사업이 하나의 계기가 됐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e-TL도 탄생했고 그밖에도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을 했는데, 홍보가 안되는 게 활용이 안되는 진짜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입니다.

### 평교수 시절에 CTL에 대해 혹은 CTL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소장** : 사실은 저는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강의를 잘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의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매체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저는 전공특성이나 강의유형면에서 본다면 특별한 지원의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저와 같은 전공의 저와 같은 강의유형의 강의를 하시는 분들, 옛날 방식으로 별다른 매체가 필요없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CTL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CTL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단지 첨단적이고 선진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강의를 해오신 분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점에서 교육의 실제 주관기관인 단과대학, 학과와 함께 협조를 원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교무부처장님으로서 겸직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시요.

**소장** :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는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교무처의 업무가 이런 식으로 확장되거나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무처가 교원인사, 학사관리 이런 것을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교수학습개발을 주도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라인에서 맡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대학 행정에서 교무처가 하는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교무처가 행정적으로라도 그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교수학습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 조직으로 나와 있고, 별도 기관장이 오시면서 그러면서도 벌어진 문제는 협조가 긴밀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책임을 맡게 되면 교무처의 기능이라는 것도 행정적인 기능에서 연구기능, 기획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센터소장이 되셨으니, 센터소장의 입장에서 교무처와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소장** : 센터 소장에서 일이 돌아가는 것을 짧은 시간이나마 보니까, 학생들이나 교수님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는 것만으로 기다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이 문제를 홍보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

다. 결국은 CTL에서 하는 서비스가 학교의 교육, 교수 학생의 강의에 있어서 실제적인 input이 되기 위해서는 교무처가 다리가 되어야 한다, 교무처가 다리가 되는 방식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획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그런 것들이 실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그 가운데서 자료를 제공하고, 보관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수업이든 교수 승진 업적 평가든 각종 교무 행정에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건 여기는 연구소와 같은 풍토를 가지고 있고, 교무처는 행정라인 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죠.

####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소장** : 우리가 우선 제공하고 있는 각종의 지원업무를 체계화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배치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과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인력이랑 예산을 들여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 즉 이런 서비스가 있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학내구성원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헤드리고 있는 서비스의 본질은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교무부처장이 CTL 소장을 겸임한다 해도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고, 결국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어떻게 내실화하느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바쁘신 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